

연예

10

2019년 11월 22·23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4

엠넷 '십대가수' 방송 날짜 연기

케이블채널 엠넷이 새 오디션프로그램 '십대가수' 편성을 조율한다. 엠넷은 21일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방송 날짜를 내년 초에서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며 "정확한 방송 일정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프로듀스' 시리즈 투표 조작 파문이 가시기도 전에 새 프로그램을 제작기로 하면서 쏟아진 비판이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십대가수'는 10대가 참가하고 평가하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다.

김건모, 예비신부 장지연씨와 혼인신고



가수 김건모(51)와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씨(38) 커플이 법적 부부가 됐다. 김건모 측은 21일 "두 사람이 최근 혼인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내년 1월 예정했던 결혼식 일정을 5월로 연기했지만, 결혼을 결정한 만큼 혼인신고 절차를 먼저 밟았다. 5월 김건모 25주년 콘서트 뒤풀이에서 연을 맺은 두 사람은 당초 내년 1월30일 예식을 올리려 했지만 날씨와 장소 섭외 문제 등으로 일정을 5월로 미뤘다.

소통 나선 이영애, '인스타' 계정 개설



배우 이영애가 대중과 일상을 공유하며 소통에 나섰다. 이영애는 21일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고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다. 14년 만의 영화 복귀작으로 27일 개봉하는 '나를 찾아줘' 홍보물을 들고 있고, 쌍둥이 자녀와 함께 찍은 모습을 공개했다. SBS 예능프로그램 '집사부일체' 촬영 장면도 찍었다. 그동안 '신비주의'에 가까웠던 그의 파격적인 행보에 팬들은 거리감을 좁히며 이전보다 한층 더 친근해졌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트와이스 일본 2집, 오리콘 데일리 1위



걸그룹 트와이스가 일본에서 내놓은 2집 '&TWICE(앤드트와이스)'로 정상에 올랐다. 21일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트와이스의 2집은 19일자 오리콘 데일리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타이틀곡 '페이스 앤드 트루'는 라인 뮤직 실시간 차트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일본에서 고공행진의 기록을 써가고 있는 트와이스는 현지 최고 연말 가요축제로 꼽히는 NHK '홍백가합전'에 유일한 한국가수로 출연하며, 3년 연속 초빙받았다.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동백꽃 필 무렵' 어눌한 캐릭터 완벽 연기...손담비의 재발견



연기자 손담비가 KBS 2TV '동백꽃 필 무렵'으로 연기력을 활짝 꽃 피웠다. 스스로도 "내게 봄날이 찾아왔다"며 기쁨을 드러냈다. 사진제공 | 케이스트

“제대로 망가진 최향미, 내 인생캐”

(인생 캐릭터)

연기자 손담비(36)가 따뜻한 겨울을 맞고 있다. 찬바람이 파고들지 못할 만큼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21일 종영한 KBS 2TV 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을 통해 연기자로써 제대로 '명함'을 내놓을 수 있게 된 자신감과 성과까지 손에 넣었다. 2007년 가수 데뷔 때부터 품었던 연기자의 꿈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다. 19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드디어 저에게도 봄날이 찾아왔어요"라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 '향미,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손담비는 이를 갈았다. 최향미 캐릭터를 놓치면 오랫동안 후회할 것 같아 이전보다 더 열정적으로 준비했다. 어눌해 보이지만 할 말은 하는 극과 극의 설정, 가족의 아픈 사연에 감정을 담아 표현하기 쉽지 않았지만 잘만 하면 분명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심 기대했다. 그리고 적중했다. 연기자로써 손담비를 재발견하게 한 2개월이었다.

"이런 칭찬을 받을 줄 누가 알았어요. 향미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했어요. 2009년 처음 연기 도전하고 10년의 경험이 헛되지 않아 다행이에요. 공효진·오정세 등 '연기 구멍' 없는 상대와 호흡을 맞춘 게 큰 도움이 됐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어 큰 축복이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발음·목소리톤 등 캐릭터 완성 공효진·오정세 등과 호흡 축복 동백·용식 커플 연애세포 자극”

실제로 손담비는 본격적인 촬영을 앞두고 기초부터 다시 다졌다. 발음, 목소리 톤, 대사 속도, 표정 등을 세세히 분석하며 연출자 차영훈 PD와 자주 의논해 캐릭터를 완성해갔다. 이왕 하는 것, "확실하게 망가지려고" 매니큐어가 뜯긴 손톱과 얼룩덜룩하게 염색된 머리카락을 그대로 '방치'했다. 촌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 형형색색의 트레이닝복을 고집하기도 했다.

연기자로써 당당히 시청자 앞에 서고 싶은 의지였다. 손담비는 "섹시가수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게 쉽지 않겠다고 마음먹어 조금은 없었어요"라며 "꽤 오래 걸리긴 했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라며 웃었다.

"데뷔 때부터 연기자가 꿈이었지만, 가수로서 모든 걸 과감하게 내려놓는 건 두려운 일이었어요. 두려움 속에서도 연기자로 도약하고 싶은 마음이 강했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제 인생에서 후회하지 않는 결정 중 하나였어요. 나중에 연기와 가수 활동을 병행하고 싶어요."

● "운명처럼 사람이 다가올까요?"

손담비는 '동백꽃 필 무렵'의 동백(공효진)과 용식(강하늘) 커플을 보며 자극 받았다. 예쁜 사람이 담긴 드라마의 여주인공이 되고 싶은 꿈과 현실의 로맨스를 떠올렸다.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사랑이더라고요"라고 말하는 그는 "주변에서 짝이 '짠' 하고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그런 운명 같은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까요"라며 웃는다.

그는 스스로 승부욕이 강하다고 말했다. "남자처럼 털털하고, 뒤끝 없고, 하지만 어느 때는 소심한 것 같으면서도 단순해요. 한번 마음먹으면 그대로 추진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나이가 나이인지라 제 자신을 파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하!"

손담비는 "나이 생각하면 못 살 것 같아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싶었는데,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을 때는 나이를 실감해요"라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서 "이전보다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서 필라테스와 근력 운동을 기본으로 영양제까지 챙겨먹어요"라고 말했다.

2년 전부터는 도예를 취미로 마음도 단련하고 있다.

"휴을 만지는 게 좋다고 해서 시작했는데, 완성품의 목표를 정해놓고 하니 까 더 재미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 잡생각이 들지 않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도 좋아요."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1983년 9월25일생 ▲2007년 가수 데뷔 ▲2008년 '미쳤어' 성공 ▲2009년 SBS '드림'·'연기대상 뉴스타상' ▲2011년 MBC '빛과 그림자'·'연기대상 특별기획 우수상' ▲2012년 네 번째 미니앨범 '눈물이 주르르' 끝으로 본격 연기 전향 ▲드라마 '가족끼리 왜 이래' '유미의 방' '미세스 김' 등 ▲영화 '탐정:리턴즈' '배반의 잠미' ▲연극 '스페셜 라이어'

이미도의 특별한 육아생활... '핫'하네

SNS 통해 '엄마의 개인생활' 게시분장도 불사...주부들에게 큰 공감

"엄마에게도 '개인생활'이 있다!" '감초연기'로 이름을 알린 배우 이미도가 이번엔 '엄마'의 이름으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 육아의 애환을 웃음으로 승화시킨 게시물을 공개하면서다. 2004년 영화 '발레교습소'로 데뷔한 뒤 KBS 2TV '아버지가 이상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려 온 이미도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15개월 아들과 함께 게시하는 '엄마의 개인생활' 시리즈로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작년 8월 아들을 낳은 이미도의 시리즈는 보행기를 타고 있는 아들 뒤에서 운동을 하거나 록 페스티벌 등 취미를 즐기는 모습 등을 코믹하게 담은 사진 게시물이

다. 천진난만한 아들과 역동적이면서도 진지한 이미도의 표정이 대비를 이룬다.

4월 시작한 시리즈는 17일 11탄까지 이어졌다. 집과 수영장, 오락실, 키즈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무대로 삼는다. 이미도는 남편과 직접 콘셉트를 짜고 주말에 사진을 찍고 있다. 남편이 사진사를 자처한다. 때로는 분장도 불사한다. 할로윈데이인 10월27일에는 턱수염을 그리고 남편의 가족제킷을 빌려 입어 로커로 변신하기도 했다.

게시물은 아이를 키우는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다. 이들은 "나도 아이가 조용한 틈을 타 저렇게 밥을 먹는다" "엄마에게도 취미를 즐길 여유가 필요하다"는 댓글로 이미도를 응원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게시물이 공유되면서 "아이디어가 훌륭하다"는 호평도 얻었다.

이 같은 온라인상 인기는 20일 MBC '라디오스타' 등 각종 예능프로그램 출연으로



배우 이미도(오른쪽)가 아들과 함께하는 '엄마의 개인생활' 시리즈로 대중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이미도 인스타그램 캡처

이어지고 있다.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관계자는 "엄마의 개인생활'은 이미도가 배우이자 엄마로 겪는 이야기를 다른 엄마들과 공유하고 싶어 시작한 것"이라며 "뜻밖의 많은 공감에 힘입어 힘닿는 데까지 시리즈로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아이슬란드 간 세계' 금금증 쇠



'아이슬란드 간 세계' 은지원(왼쪽)과 이수근

Q. 달나라 정말 가나오 A. 제발 구독취소 부탁

3000명 취소...99만7000명 유지

"이수근·은지원이 진짜 '달나라' 가나오?"

22일 종영하는 tvN 예능프로그램 '신서유기 외전:삼시세끼-아이슬란드 간 세계'(아간세)가 5분 편성, '달나라 여행' 공약 등으로 화제다. 짧은 방송시간에도 4%대(닐슨코리아) 시청률을 유지하고, 관련 영상을 담은 유튜브 계정 '십오야 채널'도 100만 구독자를 돌파하면서 '아간세'에 대한 시청자들의 다양한 호기심과 금금증도 커지고 있다.

●단골 출연 '꽃청춘' 장면 비용?

'아간세'는 작년 12월 tvN '신서유기6'에서 여행권을 획득한 이수근과 은지원이 아이슬란드로 떠나 벌이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들 외에도 매회 '단골 출연자'가 있다. 2016년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간 '꽃보다 청춘' 아이슬란드 편(꽃청춘)의 정상훈·조정석·정우·강하늘이다. 제작진은 "이 팀이 잘 찍어왔다"며 고풍포 푼포, 게이시르 등 유명 관광지 전경을 수시로 쏘다.

이는 장면 사용료에 대한 금금증을 낳았다. tvN에 따르면 프로그램마다 저작권 기준이 달라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기는 어렵다. 다만 연출자 나영석 PD를 비롯한 제작진이 똑같이 "영상을 사용하기 수월"했다. '꽃청춘'의 작가, 가이드 등도 합류해 빠르게 촬영을 마쳤다.

●TV와 유튜브 버전 편집은?

'아간세'는 10회 분량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회당 5분이라 다 합쳐도 일반 예능프로그램 한 회 분량인 50분가량 밖에 안 된다. 촬영 기간도 짧았다. 9월1일 3박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그 중 독일 정수 비행시간만 30여 시간이어서 실제 현지 촬영은 이틀에 불과했다.

녹화 분량은 TV와 유튜브 계정 '십오야 채널'도 동시에 내보냈다. TV는 5분, 유튜브는 10분짜리 영상 2편을 한 회 분량으로 공개했다. "유튜브 영상을 쪼개 TV로 방송한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지만 제작진은 두 버전을 따로 편집한다. 방송용은 "아이슬란드 여행의 재미"를, 유튜브용은 "이수근과 은지원의 촬영 뒷이야기"에 초점을 맞췄다. 편집에 오랜 시간을 쏟아 "두 버전을 비교해 보는 재미가 있다"는 호평을 얻었다.

●'달나라 여행' 공약은?

'십오야 채널'은 종영 이후에도 운영한다. 제작관계자는 "다양한 창작자들의 콘텐츠가 업로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제 시청자의 관심은 '십오야 채널'의 구독자 공약 이행 여부로 이어진다. 나영석 PD는 9월20일 실시간 방송에서 "100만 구독자가 넘으면 이수근과 은지원을 달나라로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19일 오후 100만 구독자를 돌파한 후 제작진은 "다각도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 PD는 뒤늦게 "2명을 달에 보내는 예산만 8000억 원"이라며 "사랑한다면 구독 취소해 달라"고 호소했다. 덕분에 3000여 명이 구독을 취소해 21일 현재 99만7000여 명의 구독자를 유지하고 있다.

유지혜 기자